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제5강 삶을 기르는 방법: <양생주> 편

◆ 1교시 삶을 기르는 방법(養生主) ①

▲ 장자의 양생주 편

그 다음에는 「양생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생주에서는 일단 앞에 짤막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짤막한 얘기를 한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양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養은 기른다는 뜻이죠. 그리고 生은 삶입니다. 그리고 主 이거는 養生之主. 삶을 기르는 기준, **삶을 기르는 도**, 養生之道라고 생각하며 되요. 어떻게 하면 삶을 기를 수 있는가?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생명이기도 하고, 목숨일 수도 있고, 실제로 살아나가는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앎과 대비되는 실천의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잘 기를 수 있는가? 어떻게 선양할 수 있는가? 맹자 같은 경우에도 養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이 氣를 기르는 내용으로 양기론에서 일부 나옵니다. 맹자의 양기와 장자의 양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장자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양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긴 삶인데 목숨이다. 풀롱의 의미로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를테면 생명의 연장의 의미로 양생의 의미를 많이 쓰죠. 그런 식으로 장자를 보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옵니다. 맨날 얘기하는 것이 化라는 것인데 化라는 게 어떤 존재의 입장에서 A라는 존재가 B라는 존재로 바뀌는 건데, 결국 B라는 존재의 生이라는 것은 A라는 존재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죽음과 생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추구하는 것은 생명의 연장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념적으로 일단 말이 안 됩니다. 가려는 방향과 가려는 수단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양생을 일단 그런 식으로 봐서 곤란한데 꼭 그런 식으로 봐서 생명의 연장시키는 것을 배제해야 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장자를 읽을 때 어려운 점인데, 그거 때문에 격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양생주의 첫 문장에 보면 盡年이라는 말이 나와요. 盡年할 때 年은 천수입니다. 자기가 타고난 수명,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장자의 양생주 제1편 제1장 나오는 방법을 따르면 최소한 생명의 연장까지는 안 가도 타고한 천수는 다할 수 있다. 그리고 어버이도 잘 모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시킨다는, 라이프를 연장시킨다는 풀롱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장자의 전편에는 이념과 견주어

www.artnstudy.com

보면 이건 문제의 소지가 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1장을 한번 보죠. 일단 저는 원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번역문을 보시면 됩니다.

吾生也는 有涯하고 생은 삶이죠. 우리의 생명은 有涯가 있다. 涯는 끝. 이런 뜻이죠. 끝이 있다. 한계가 있다. 끝이 없으면 无涯가 되죠. 无涯하니깐 옛날에 양주동 박사의 호가 无涯였죠. 호가 무애 양주동 박사였죠.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 자주 나오셔서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따와서 호를 지은 거 같습니다. 吾生也는 有涯하고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애.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죠. 그런데 지식은 그런데 이 有涯로 隨无涯하나니 有涯. **한계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지식을 쫓아가니 위태로울 뿐이다.** 위험한 일이다. 已而爲知者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殆而已矣니라.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이 矣는 단정의 어조사죠. '~뿐이다.' 그렇니깐 이렇게 해라 爲善호대 無近名하며 爲惡호대 無近刑이오, 緣督以爲經하며, 可以保身이며, 可以全生이며, 可以養親이며, 可以盡年이니라. 爲善호대, 선을 실천하되, 无近名하며 명성을 이루기에 가까이 하는 일이 없으며, 선을 하더라도 정당히 해야지,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며 소문이 나서 명성이 생겨서 피곤하다는 말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가끔씩 지하철역에서 사람 떨어졌을 때 전동차가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냥 이런 일이 있다고 살만한 세상이라는 컨셉으로 가면서,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없죠. 그리고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되어도 절대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숨는데 그분들이 혹시 장자를 읽어보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태롭다는 거죠. 소문이 나면 다음부터 나쁜 짓도 못하고 그죠. 나쁜 짓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것은 다르죠. 그런가하면 용감한 시민 상 받은 사람이, 갑자기 도둑질 하여 형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죠. 그래서 한두 가지 행동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반성해주기도 하는데요.

▲ 장자의 타협적 도덕론

어쨌든 여기서 장자가 하는 얘기는 선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생명을 해친다는 이야기에요. 반대로 위악무근형이요. 악한 일을 저질러도 형벌을 가까이 감에 없어야 하고, 나쁜 짓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나쁜 짓하면 형벌에 걸리고 육체적 손상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안 좋다. 선도 적당히 악도 적당히 마치 할리우드 주인공처럼 보는 것처럼 적당한 정의가 적당한 사람 적당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세상을 바꿔지 않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는 존재.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인간유형이냐고 하면? 이른바 **향원(鄕愿)**이에요, 鄕에 다가 愿자를 쓰는데 요 때 原은 心자가 붙어 있는 사람. 추하다는 뜻이에요. 好人이다. 이런 뜻이에요. 온 고을 사람들

www.artnstudy.com

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 그게 향원입니다. **맹자**가 격렬하게 비난해요. 이게 가장 도와 덕을 해치는 자라고. 공자 식으로 보면 맹자가 얘기하는 게, 군자(君子)가 최고고 물론 성인이 더 최고지만 공자는 맹자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광자(狂者). 뜻이 높은 사람 미친 사람인데 한 곳에 빠진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견자(見者)에요. 광자는 뜻이 높지만 실제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근데 **견자는 뜻은 높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게 있는 사람, 所不爲 사람. 맹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하지 않은 것이 있는 뒤에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기본이다. 베이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견자입니다.

鄕愿은 절대 안 되는 인간이다.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 데, 이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치중립이라고 얘기하는 데 근데 가치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세상에 영합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인간이 鄕愿이며, 바로 그런 鄕愿에 입장으로 묘사되죠. 그러니깐 유가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희는 장자를 상당부분 인용합니다. 주희의 명작이 사서주석 논어나 맹자의 주에… 주희가 장자를 종종 인용합니다. 사람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공자의 말씀을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종종 장자를 인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이분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비판해요. 위선이라고 할 때 선을. 원래 군자가 선을 실천할 때, 애초에 이름을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마땅하니깐 하는 것이지 명성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자체가 옳지 않다. 형벌도 형벌에 걸리만큼 형벌을 걸리지 않을 만큼 악을 저지르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형벌에 걸리지 않을 만큼 형벌을 저질러도 되냐고 주자의 어류에서 비판을 해요.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차 없이 비판하는데… 사실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위험 상태에서 맹자나 공자처럼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선언하듯이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있고, 첫 시간에 강조해 드린 것처럼 장자는 처지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어떤 공맹이 추구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나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되, 오늘은 송나라 땅이 되었다가 내일은 초나라 땅이 되고 그다음 날에는 위나라 땅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힘없는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다면 이른바 명예니 형법이라는 거도 이런 식으로 타협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을 정의가 구현 되어 있다든지, 사회적 가치가 일정하게 받아들이는, 합의된 사회적 가치 있을 때에는 주자에게는… 주자는 중세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중세에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은 주희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장자와 처지가 달라 명분이나 명성이나 형벌이나 이런 타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자에게 있는 예민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자를 직접 비판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www.artnstudy.com

계속하는 얘기 보겠습니다. 緣督以爲經하면 可以保身이면 保身 나오죠. 可以全生이면 可以養親이면 可以盡年이니라. 緣督以爲經. 緣은 따른다는 뜻이고요. 督은 중을, 가운데를 따른다 중도를 따른다. 이 때 중도는 공맹이 말하는 중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적당한 중간이에요. **중간을 따라서 以爲經. 그것을 經으로 삼는다. 시경 서경 그런 經이 아니라 삶의 원칙, 행동의 원칙이다.** 항상 중간을 따르는 것을 행동을 원칙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몸을 보신할 수 있다. 可以保身이면 可以全生.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可以盡年 타고난 천수를 다할 수 있다. 중간에 또 있죠. 어버이도 잘 모실 수 있다. 양친. 이제 주자 같은 유가 같은 학자들이 볼 때 확 뒤집어지는 일이다. 어버이를 모시는 것을 최선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죠. 말씀을 잘 따라서 곁을 떠나지 말고 늘 오로지 어버이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뒤집혀도 삶이 간섭하지 말고, 오로지 몸보신하면서 전생도 되고 양친도 되고 보신도 되는… 그러니깐 비판하는 건데.

어쨌든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을 따라라. 나는 이쪽 편이다 저쪽편이다 하지마라는 얘기이다. 한의학에서 보면 독맥이 팔맥 중에 하나죠. 임독양맥 무협지에도 자주 나오는 임독양맥이 터졌다. 갑자가 무공 수위가 높아지고 고수가 된 무협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임맥은 회음부에서 앞쪽으로 배꼽을 지나 혀 밑에 있는 혈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임맥이고, 독맥은 반대로 회음부 뒤쪽에서 척추 머리로 이렇게 와가지고 윗입술이 되겠죠. 잇몸 위부분에 무슨 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는 것이 독맥이며 중간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임독양맥으로 설명을 하는데 주자는 이것 설명을 하면서요. 주자가 주희요. 정말 탁월한 주석가인데 이것을 주석하면서 독을, 옷의자가 밑에 들어간 독은 윗도리 뒤에 등솔기 그것을 가지고 풀이를 합니다. 딱 떨어지는 풀이에요 주자가 저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장자 해석하는 거 보면 많이 문제가 있다. 내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하고 싶지 않아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쫌 하지. 했으면 장자의 해석도 그렇고 중구난방이거든요. 제가 번역을 할 때 수십 종의 책을 모아 놓고 보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장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경우를 선택해서 번역했다고 내놓는 것이 무책임할 정도로 불가능한데. 아마 주희가 했으면… 하나의 표준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표준적인 해석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표준적인 해석이 있고 나서 독창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장자 같은 경우는 표준적인 해석을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고 장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 힘듭니다. 어쨌든 텍스트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요렇게 풀이를 해요.

역시 중간이라는 뜻이 되는데 임독양맥 난해한데 등솔기로 얘기하면 딱 쉽죠. 즉 중간을 따라서 적당히 살아라. 근데 이게 하나의 가치 달려가는 사람의 입장을 뭐 저리 비겁한 사람이 있냐 이렇지만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 걸 수는 없잖아. 장자가 보기에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가치가 목숨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전생 보전하고 몸을 지키고 천수를 누리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 제대로

www.artnstudy.com

사는 거지. 괜히 헛된 명예를 쫓아가서 일찍 몸을 손상시키고 죽고 이거 옳지 않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생주 다음 편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 1장을 정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

◆ 2교시 삶을 기르는 방법(養生主) ②

▲ 포정해우 - 함지악

장자 전편을 통 털어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곤붕이야기 그리고 또 제물론에 나오는 천뢰, 지뢰, 인뢰, 음악이야기, 제물론 마지막 편에 호접몽 이야기, 또 포정해우, 庖丁이 소 잡는 이야기입니다. 백정이죠. 포정이야기 나오는데, 포는 푸줏간이며, 丁은 인정입니다. 丁이 사람을 헤아리는 단위에요. 백정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뜻이고 백수와 같은 뜻입니다. 백수나 백정이나 같은 말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상업 그러면 농사 지는 거 그리고 삼마, 뽕나무 심고, 누에치고, 삼 키워 길쌈하는 거 이게 상업이고, 그거 하지 않는 자들이 백수, 백정입니다. 그러니깐 소나 돼지를 도축하는 거 농사는 지을 수 없고 그보다 더 천한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인데. 요즘 백수라는 말을 쓰지만 요건 말이 됩니다. 요즘 백조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은 전통적인 말과는 안 맞습니다. 이 白이 그런 의미로 바뀌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남자 백수는 백수라고 그렇고 여자 백수는 백주라고 하든데. 얼마나 백수가 많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어요. 백조는 시대를 반영하는 용어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백정이고 여기서 포는 푸줏간에서 요리를 담당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보면 소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포정은 푸줏간을 담당하는 백정이다. 이런 뜻으로 포정이라고 쓰는데, 제가 장자 주석을 보다가 간혹 갸우뚱하는 데가 이런 데 입니다. 이것을 어떤 주석자가 성이 포씨고 이름이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곤란한 주석이거든요. 백정이라는 뜻으로 포정이고 성이 포씨고 이름이 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良庖, 族庖라는 말이 본문 속에 나오는데… 良庖는 뛰어난 백정이라는 뜻, 族庖는 아주 많다는 뜻. 뛰어난 포씨, 흔한 포씨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간혹 갸우뚱해요. 그러나 다른 주석은 참고할 만 것도 있어요. 어떤 주석가가 장자의 소요유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鯤을 고래 경(鯨)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학자도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鯤은 새끼 물고기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鯨으로 바꾸면 장자가 의도 한 것이 사라져

www.artnstudy.com

결국 작품 망치는 거 입니다. 그런 주석도 있어서 가끔씩 뜨악하기 하는데, 어쨌든 포정은 백정입니다.

解牛. 소를 잡는 거예요. 소를 잡는 것이 解牛인데, 소만 잡습니까? 양도 잡죠. 그래서 解를 요렇게 解 쓰고, 소를 해체하는 것은 刀를 위에 놓고 여기에도 刀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牛를 이렇게 쓰죠. 아마 돼지 잡는 것은 요런 해 글자로 쓰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죠. 요 글자는 아직까지 사용합니다. 어쨌든 소를 잡는데, 포정이 소를 잡는 것이 본문 속에 나오는 데 合於桑林之舞. 桑林의 무악에 꼭 맞고, 桑林은 클래식 중의 클래식 입니다. 經首의 앞 절에 꼭 맞다, 經首도 클래식 중에 클래식 입니다. 황제가 작곡했는데 그것 다시 요임금이 중시해가지고 함지구소지악이 장자 다른 본문에 또 나옵니다. 동정의 들판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장대하게 연주하는 것이 두 차례 나와요. 이건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악장의 음악과 꼭 맞는 것이, 포정이 소를 잡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저는 일단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깐, 여러분은 번역문을 같이 보시면서 제 얘기를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바랍니다.

庖丁爲文惠君解牛. 백정이 문혜군을 위해서, (문혜군은 양나라 혜왕 일 것이라는 추정이 지배적입니다.) 해우 소를 해, 소를 해체한다. 소를 잡는데, 수지소촉과 견지소의와 족지소리와 슬지소기면 획연향연하며 奏刀騞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文惠君曰, 譆善哉, 技蓋至此乎. 手之所觸과 손으로 觸 붙잡는 것입니다. 소뿔을 꼭 붙잡고, 肩之所倚와 자기 어깨에 소를 기대게 하고, 足之所履와 발로는 소를 지그시 밟고, 膝之所踦이면 무릎으로 소를 누르면 그때부터 칼질을 하는 것입니다. 砉然嚮然하면 砉然은 칼질하는 소리입니다. 휙휙 등등 입니다. 휙휙 하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奏刀騞然. 그 다음 획자는 앞의 획자 보다 조금 더 빠른 소리입니다 馬가 옆에 붙어있죠. 처음은 砉然嚮然은 휙휙의 소리가 슥삭슥삭 메아리치는 소리지만 奏刀砉然은 주도는 칼을 움직이는데 휙휙 소리가 더 빨라지고 거세지는 것. 옆에 馬가 붙어있으니까 더 소리가 거세지죠.

奏刀라고 표현했죠. 奏刀의 奏는 음악을 연주한다는 뜻이에요, 칼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奏刀라는 표현도 있고 鼓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鼓刀.. 북 고(鼓)인데.. 원래 이렇게 쓰고요. 鼓는 요게 又가 손 수자거든요. 又는 오른 손인데.. 또 右와 통해요. 오른 손으로 북채를 잡고 두드리게 보여요. 칼을 갖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鼓자 있지만 연주한다는 뜻으로 쓰이며 奏나 鼓나 같습니다. 뒤에 보면 動刀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때 動刀는 칼을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奏刀나 鼓刀는 예술적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는 휙휙 메아리가 있다가 砉然이라는 馬가 나와 갑자기 음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칼을 움직이는 소리가 칼을 연주하는 소리가 휙휙해서 莫不中音.. 中은 꼭 맞는다 뜻입니다. 음률에 莫不中. 꼭 맞지 않음이 없어서, 合於桑林之舞하면 桑林의 무악에 부합하며 꼭 맞다. 桑林이 바로 탕 임금이에요. 최초에 혁명을 일으켜 걸왕을 죽이고 새로 상이라는 나라를 만든 임금입니

www.artnstudy.com

다. 桑林의 무악에 부합되며, **舞라는 것이 춤인데, 고대에는 이 舞나 이 시나 악이나 다 일체입니다. 논어에도 다 일체로 되어있다.** 이 舞를 예로 바꾸면 됩니다. 예가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니 舞 맞습니다. 시의 노래를 악이라고 하면 되고, 시의 가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동작으로 옮기면 舞가 되는 데. 그것이 예죠. 桑林之舞할 때 이것은 음악이자 춤이자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桑林의 무악에 합. 맞으며, 마침내 經首之會한데, 經首의 會. 經首가 모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經首라는 악장. 아까 이 咸池라는 곡은 황제가 작곡했다는 음악이에요. 나중에 요임금이 정수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음악의 앞 절에 꼭 맞다.

이거 포정이 소를 잡는데… 그 다음에 뭐 手之所觸 肩之所倚 足之所履 膝之所踦 砉然響然 奏刀騞然 莫不中音, 合於桑林之舞, 乃中經首之會 이것이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정이 칼을 들고 소를 잡는데 가자마자 소뿔을 잡고 그리고 소를 어깨에 기대게 해서 앉히고 그 다음에 발로 지극히 소를 밟고 무릎으로 소를 누른 다음에 휙휙 하는데 처음에는 桑林의 음악소리에 맞더니 결국에는 요임금이 정수했다는 그 咸池의 악장의 經首 음악으로 맞추어서 소를 다 잡는 거예요. 그것이 소 잡는 것이 예술의 행위로 마무리 되는 거죠. 누가 소를 그렇게 잡았다고 해보세요. 감탄하겠죠. 감탄하는 게 文惠君 曰하고 나옵니다. 그 전에 咸池의 얘기가, 咸池라는 것이 연못이에요. 장자 지락 편에 또 나옵니다. 咸池 얘기가 나오는데, 咸池와 九韶의 음악 동정의 들판에서 장대하게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지는 본래 해가 동쪽, 그러니까 땅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직방시가 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직책으로 삼는. 땅이 네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즉 동서남북으로 인식한 것이다. 땅이 사실 꼭 네모하게 생겼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인식하는 패턴의식이 네모한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장자 역시 육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육합은 상하에다가 동서남북을 합치니까 육합이 되는 거죠. 공간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만 공간을 인식하려면 이런 식의 좌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쪽 끝에 있는 못이 咸池 입니다. 서쪽 끝에 있는 것이 虞淵. 해가 떠오를 때 이 咸池에서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虞淵에서 샤워하고, 자고, 또 다시 떠오르고… 이런 식의 내용. 어쨌든 그런 것을 악으로 만든 것이 함지악입니다. 함지악 중에서 經首라고 하는 것이 악장 이름이구요. 추정컨대 아마 구악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文惠君 曰. 譆善哉. 哉는 느낌표이구요. 技蓋至此乎.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요거 이제 蓋자고 요거 이제 盍자구요. 草를 떼고 보아야 합니다. 한자의 고문에는 草가 붙었다. 떼어졌다는 것이 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정자가 천생정민 할 때 정 자가 衆과 같았습니다. 정민 즉 만백성과 같은 뜻입니다. 하늘이 만 백성을 낳았다. 이럴 때 시경에는 이게 그대로 이 정자로 되어있고 맹자는 草가 붙어 있습니다. 정민.. 草는 붙었다. 떼어졌다. 지 마음대로 입니다. 毒도 원래 生과 母 이것이 해친다는 뜻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를 독 자 입니다. 노자에 보면 毒之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만물을 기른다는 뜻으

www.artnstudy.com

로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毒草가 있죠. 草가 들어간거. 근데 이것을 붙였다 떼어졌다 하다 보니 이게 毒로 쓰이는 데 지금은 해친 독자로 쓰이고 기를 독으로 안 씁니다. 맹자에도 盍자로 읽어야 하는데 蓋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합대군 왕환이 있어요. 이는 합당의 대부에요. 근데 이게 盍자로 안되어 있고, 蓋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개대부 왕환 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읽고 합대군 왕환과 맹자와 사이가 아주 안좋아서 모욕하려고 사실 옛 날에 이름을 살짝 바꾸어서 모욕합니다. 소동파 소식집에 갔더니 소동파가 자기 앞쪽에 맛있는 것 다 갖다놓고 손님 앞 쪽에는 풀만 갖다 놓아서. 그래서 소식의 이름을 쓸 때 이렇게 바꾸어 禾가 앞쪽에 나오게 하고 魚를 뒤에 가게 하여 글자를 바꾸어 상대를 비판하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盍에요 盍으로 읽어야 해요. 盍이니깐 何 不. 어찌 아니할 盍이에요. 합 된거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以.. 爲.. 이게 합쳐져서 渭 되고요. 之.. 於.. 이게 합쳐져서 渚 이렇게 되고요. 之.. 焉.. 이게 합쳐져서 旃되구요. 사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만 맞추어 보편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何.. 不이 합쳐저셔 당연히 盍 된 것입니다.

▲ 양생의 도리 - 틈과 결의 도를 따라서 몰입하다

기술이 도대체 어찌하여 技蓋至此乎.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이렇게 감탄합니다. 포정이 그때 비로소 釋刀對曰. 칼을 풀어 놓고 이렇게 대답했다. 臣之所好者道也. **신이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도입니다. 進乎技矣. 기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 입니다. 기술을 넘어 있는 것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아주 기가 막혀요. 始臣之解牛之時. 始.처음에 신.. 제가 소를 잡을 때에는 所見无非全牛者니 보이는 것이 소가 아닌 것이 없었다. 소가 눈앞에 있는 완전히 일체의 소만 보였다는 얘기. 소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가 소를 계속 보았더니 三年之後 未嘗見全牛也. 삼년이 지나자 소가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뼈는 뼈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분리되어 보이는 거예요. 道가 길이잖아요. 道는 인도할 도(導)로도 쓰이죠. 칼로 이놈을 잡느냐? 그게 다 보인다는 거죠. 方今之時. 방금 이때에는.. 臣以神遇.. 신이 정신으로 우. 소를 만났고 不以目視. 눈으로 보지 않았다. 눈으로 보면 일체의 소죠. 눈으로 보지 않고 정신으로 보았다는 말이죠. 官知之而神欲行. 여기에 복잡한 주석이 있는데 그냥 생략합니다. **이목구비의 감각 기관으로 지각하는 활동은 중지하고** 而神欲行. **정신이 움직이면,** 依乎天理. 天理를 따라서… **天里를 따라서 理 라고 하는 게 본래 결입니다.**

천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선지의 고문 장자입니다. 천리라고 하면 유가가 먼저 말하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어쨌든 다른 맥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일방적으로 유

www.artnstudy.com

가를 비판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천리를 이야기 할 때 이는 결입니다. 결인데 요 리는 옥인데, 즉 옥의 결입니다. 옥을 다듬는 것이 攻玉이죠. 타산지석으로 攻玉이라 다른 산에서 나는 내 옥을 다듬을 수 있다. 옥을 다듬다. 치옥 옥을 다듬을 때 옥의 결을 보고 다듬어야 하죠. 옥의 결을 모르고 다듬으면 다 깨어버리죠. 확실히 기술자들은 사물은 먼저 대할 때 다시 자세히 보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보지 않고 망가지게 하는 데 일단 자세히 보고 결을 파악하는 거죠. 결을 파악한 후 어쨌든 원래는 옥의 결이고 동시에나 또 여러 가지 결이 나옵니다. 주리도 이구요. 피부에는 살결이죠. 결을 따라서 다스리면 쉽고 결을 따라 다듬지 않으면 막히는 거죠. 가로 막다. 이럴 때도 횡 하면 가로막혀있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직하면 뚫려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사람의 신체구조가 세로 길을 똑바로 간다는 얘기는 길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만약 게라면 옆으로 가겠죠. 사람은 앞으로 가니깐. 똑바로 간다. 정직하다 세로로 인식 앞으로 걸어가게 되니까 천리를 따라서 소를 잡는 것 입니다. 천리를 따라 근육, 힘줄 등 엉켜 있어도 자연의 결을 따라서 **결에 의존해서 批大卻하면. 大卻은 큰 틈이죠. 틈만 치지 뼈나 살을 치지는 않고… 틈새로 간다는 얘기죠.** 틈을 치며 導大窾 하대. 大窾 할 때 窾은 공간이죠. 大窾은 큰 공간이죠. 빈 큰 공간으로. 칼은 멀쩡한 거예요. 칼을 인도하대 因其固然이라. 固然은 본래 그러한 거 본래 그러한 길을 인, 그대로 따르는 지라, 枝經. 이때는 기로되어 있지만 枝으로 봅니다. 枝經과 경맥으로 보아서 枝經과 경맥 그리고 肯綮는 뼈와 살이 연결된 곳입니다. 未嘗. 건들린 적이 없는데 而況大軱乎, 하물며 큰 뼈가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소의 몸체를 이루는 큰 뼈, 등줄기 뼈, 연결되는 뼈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데요. 良庖歲更刀 割也.. 良庖.. 훌륭한 백정입니다. 歲更刀. 更은 고칠 갱 자. 한 해마다 칼을 바꾼다. 割也요. 割. 왜냐하면 살코기를 가르기 때문이고 族庖. 族은 많다는 뜻이에요. 흔한 백정들은 월갱도.. 한달에 한 번 씩 칼을 바꾼다. 왜냐하면 절.. 뼈를 자르기 때문이다. 즉 이빨이 더 빨리 나간다. 그죠. 今臣之刀. 제가 쓰는 칼은..十九年.. 十九年이 줄곧 사용했어도 所解數千牛矣다..소의 수는 천마리를 잡았어도.. 而刀刃若新發於硎. 보이는 칼날이 마치 硎은 숫돌 형자에요. 發는 씻을 발자예요. 발어형은 숫돌에서 막 새로 發 간 것 같습니다. 發은 물을 뿌리고 숫돌에 갈잖아요. 칼이 이가 안 빠짐. 왜냐하면 彼節者有閒. 而刀刃者無厚. **저 마디마디 사이는 틈이 있고, 예를 들면 소의 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마디가 되어 있다면 이 사이에 틈이 있고 살과 뼈의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죠.** 유한.. 틈.. 그러나 칼날은 두께가 없다. 칼날의 단면도에서는 실제로 없을까요? 실제로는 재어보면 있어요. 끝에 가면 없어지죠. 근데 극한으로 가면 없어진다는 말. 이것이 두께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니 恢恢. 공간이 널찍하다. 乎其於遊刃. 칼날을 움직이는 데도.. 必有餘地矣 반드시 남은 여지가 있게 될 것이니.. 是以十九年而刀刃若新發於硎.. 그래서 19년이 되어도 칼날이 마치 숫돌에 간 듯합니다. 雖然.. 비록 그렇지만.. 도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每至於族. 이 때 족은 뼈와 살과 엉킨 곳이에요. 근육과 골반이 연결된 곳에 이를 때마다.. 吾見其難爲..내가.. 其難爲.. 내

www.artnstudy.com

가 그것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출연.. 삼가는 모양. 조심조심. 경계해서.. 視爲止하면 눈길을 고정시키고.. 行爲遲.. 행동도 천천히 해서. 動刀甚微.. 칼날을 매우 세심하게 움직입니다. 謋然已解.. 謋은 휙휙의 소리, 스르륵해서 이미 뼈와 살과 힘줄 사이가 갈라져…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도이립. 그때 비로소 칼을 든 채 일어나서 委地.. 사방을 살펴보며.. 爲之躊躇.. 躊躇는 주저주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러다가 뜻이 가득하면, 즉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전까지는 제 정신이 아닌 거죠. 도의 세계에 빠져 정신이 없는 것다가 일상의 세계에 돌아왔는데 일상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결국 돌아오면 善刀而藏之. 선도.. 칼을 잘 닦아서… 잘 챙겨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몰입하다가, 즉 다른 세계에 있다가 이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생화를 주로 찍는 사진가인데. 만날 산에 가서 야생화 찍고 있다가 깊은 산속에서 귀한 야생화를 두 시간 동안 다 찍고 돌아서는데 뭔가 시커먼 것이 보여서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가가 집중하고 있어. 인기척도 내면서 사진가 쪽으로 갔는데 사진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놀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했다고 빠져 나올 때에는 준비운동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절합니다. 滿志라는 것은 제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혜군이 말하길, 善哉라 훌륭하구나. 吾聞庖丁之言.. 得養生焉.. 나는 백정의 말을 듣고 양생의 도리를 얻었도다. 양생의 도리란 천리를 따라 사는 거. 依乎天理. 천리를 따라 사는 거. 因其固然… 固然은 본래 그러한 거. 固然과 天理는 같은 뜻이며 이는 자연입니다. **내가 어떤 외부 대상 사물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고 본래의 자연의 결을 따라 가는 것이 양생의 도리이다.** 그 다음이야기는 노담의 죽음인데 요 대목은 또 설명이 길어질 거 같은데. 이것은 다른 시간에 요 대목을 넣어서 다음 편 인간세 편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의하는 대목이 나오면 같이 엮여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죠. 마치겠습니다.

www.artnstudy.com